

장흥군,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 활동 본격화

5개 분야 12개 실천과제 지정...상반기 내 성과 창출 TF 정례회의 개최...전문가 자문·선진지 답사 추진

장흥군이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지역으로 알려진 장흥군은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 자원, 청정 자연,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하다. 특히, 장흥읍 서부권의 경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장흥읍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등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삼형제가 장원급제한 명당 장원봉, 장수를 의미하는 400여년 된 왕 버들 나무, 50년 벚꽃 명소 예양공원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

명소도 다양하다.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연계 체류형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TF'를 구성했다.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팀 26명이 참여한 TF는 지난 1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개발 TF는 ▲토요시장 활성화 ▲도시 디자인 ▲스토리텔링 ▲체험 콘텐츠 발굴 ▲먹거리 개발 및 단지화 등 5개 분야 12개 실천

과제들을 지정하고 상반기 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 장흥읍 서부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공유 한 후 각 현장을 방문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TF 단장인 조석훈 부군수는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TF 활동을 통해 장흥읍 서부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관광객이 찾는 장흥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활발한 TF 활동을 위해 정례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선진지 답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지역 자원 활용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개발 순항

머드팩·고농축 앰플·입욕제 등 제품 품평회 개최 '호평 이어져'



완도군은 지난 9일 광주여자대학교 황룡관에서 미용과학부 교수, 학생, 스과 관련 관계자, 완도군 평가단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품평회는 군에서 개발 중인 28개 테라피 제품 중 대표 제품 10여개를 선정해 진행했다. 10여개 제품은 피부 미용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머드팩, 피부 컨디션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고농축 앰플, 긴장 완화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 피부 영양 및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크럽 등이다.

품평회에서는 "다른 테라피 제품에 비해 건조함이 없고 산뜻함과 보습력이 좋다", "입욕제의 경우 노폐물 제거가 잘 돼 개운하고 좋았다", "해조류 겔의 경우 피부 컨디션이 개선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반면 '제품의 주원료인 해조류와 갯벌 특유의 비린 냄새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니 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크럽 제품은 다소 입자가 거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군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5월 해양치유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에 활용할 제품을 개발 중이다.

군은 이번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완도만의 치유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테라피 제품의 주원료는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해조류와 갯벌이며, 황칠, 비파, 유자 등 약리 효능이 입증된 특화 자원도 활용했다. 아울러 mer(바다)와 Clarte(청정한)를 조합한 MERCLAR(메클레)로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하고 BI도 개발 중이다. 제품이 확정되면 임상 시험과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생산이 완료되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테라피 제품을 활용한 오감만족 해양치유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여자대학교 최은미 교수는 "완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완성도 있는 테라피 제품이 생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테라피 제품은 해양치유센터 운영의 성공 여부는 물론 나아가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성공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므로 품평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더 전환경적이고 효능이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 청자축제에서 즐기는 딸기 파티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크 딸기' 모집

강진문화관광재단은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의 특별한 행사로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크 딸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크 딸기 행사는 강진 특산품인 딸기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메뉴와 청자식기, 청자소품이 어우러지는 강진산 딸기 파티 행사다. 청자축제 기간 중 제철을 맞이한 강진 딸기는 뛰어난 맛과 향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 이를 활용한 강진만의 딸기 파티를 기획했다. 강진은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 평균기온이 2도 이상 높고 연평균 일조시간이 20시간 더 많아 당도가 높고 향과 색감이 뛰어나다. 파티에서는 강진 딸기를 활용한 샐러드와

스프를 시작으로 메인 메뉴인 딸기 리소토(Risotto)와 딸기 피자, 그 외 다양한 딸기 디저트와 딸기음료를 제공한다. 아이디어 회의부터 메뉴 결정까지 지역주민과 셰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청자식기 및 청자소품을 활용한 플레이팅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청자를 홍보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청자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 파티는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를 원하는 관광객은 오는 2월21일까지 강진 청자 축제 홈페이지 (<https://gangjin1.clickn.co.kr>)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접수를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28일까지 신청·접수 연 20만원 지원...농협카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진도군이 올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등 전남도내 가맹점에서 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거주한 19~28세 청년(1995년~2004년 출생자)

이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